

2020 수능특강 3회 모의고사 정답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④	②	④	④	④	⑤	④	④	①	③	⑤	④	②	④	④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③	③	④	⑤	①	⑤	②	⑤	③	④	②	④	②	④	⑤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⑤	④	①	②	④	④	⑤	②	②	④	⑤	①	⑤	①	

1. ④

[해설]

말하기 계획의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전문 기관의 조사 자료를 활용해 설명하는 부분은 없다.
- ㉡ 장기적 유통 기한 확보를 위한 포장 기술은 이전 포장 기술의 특성이기도 하며, 장기적 유통 기한 확보를 위한 포장 기술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례(콩나물)를 제시할 때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1문단에서 강연자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여러분 또래인 제 주변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 ㉣ 1문단 마지막에 강연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 6문단에서 전자레인지 관련 포장 기술의 단점이 포장을 뜯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자동 증기 배출 포장 방식으로 개선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2. ②

[해설]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의 질문은 간편식에 대한 청중의 배경지식 정도를 알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답변을 들은 후 강의 내용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강연 내용의 수준이나 구성을 조절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다.
- ㉡의 질문은 간편식의 종류에 대한 청중의 경험 정도를 알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답변을 들은 후 강의 내용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강연 내용의 수준이나 구성을 조절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의 질문은 강연 주제에 대해 소개하기 위한 질문으로 강연 내용의 수준이나 구성을 조절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 ㉣의 질문은 강연 중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질문으로 강연 내용의 수준이나 구성을 조절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을 조절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㉔의 질문은 한식을 우주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일이 정말 대단함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으로 강연 내용의 수준이나 구성을 조절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3. ④

[해설]

글쓰기 전략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는 회사의 근무 방식 및 문화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사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균형을 의미하는 천칭 그림의 가운데에 시계가 놓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천칭 양쪽에 업무용 공간을 의미하는 빌딩 그림과 개인 공간을 의미하는 주택 그림을 배치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게 가꿀 수 있고, OO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④

[해설]

글쓰기 전략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는 회사의 근무 방식 및 문화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사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균형을 의미하는 천칭 그림의 가운데에 시계가 놓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천칭 양쪽에 업무용 공간을 의미하는 빌딩 그림과 개인 공간을 의미하는 주택 그림을 배치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게 가꿀 수 있고, OO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④

[해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늘은 초안에 대한 ... 수정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와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방안을 조율하면 좋겠습니다.’ 에서 회의 참여자가 발언할 내용을 한정하고 있다. 또 ‘여러분이 모두 ... 괜찮을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는 발언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회의 참여자의 발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 했다고 언급하고 ‘의견이 모인 것 같’ 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회의 참여자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 발언도 요구하지 않았다.
- ② 회의 참여자가 발언한 내용들의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 ③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지 않았다.
- ⑤ ‘수정 방안을 조율하면 좋겠습니다.’ 에서 참여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는 있지만 대립에 대해 중재하는 안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6. ⑤

[해설]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B]의 팀원 1의 발언은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을 구별하자는 메시지를 명시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C]의 팀원 2의 발언은 이러한 팀원 1의 발언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러한 메시지를 명시하자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C]의 팀원 3의 발언은 [C]의 팀원 1의 발언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지 [B]의 팀원 1의 발언에 담긴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C]에서 팀원 2의 ‘하지만 그런 내용이 ... 있을 것 같습니다.’ 는 [B]의 팀원 1의 발언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 ② [C]에서 팀원 1의 ‘말씀을 듣고 보니 ...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는 [C]의 팀원 2의 발언 내용을 수용하는 부분이며, ‘그렇게 본다면 ... 담는 것이 좋겠습니다.’ 는 [B]의 자기 발언을 수정한 부분이다.
- ③ [C]에서 팀원 3의 ‘맞습니다.’ 는 [C]의 팀원 1의 발언에 동조하는 부분이며, ‘광고를 통해서 ...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는 [B]의 자기 발언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제시된 부분이다.
- ④ [C]에서 팀원 1과 팀원 3의 발언은 팀원 2가 [B]에서 한 발언에 보충하여 [C]에서 발언한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므로 [B]의 팀원 2의 발언에 담긴 제안을 인정한 것에 해당한다.

7.④

[해설]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에서 팀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 중 [A]의 수정과 관련 있는 것은 퇴근 후 시간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 ‘저녁이 있는 삶’을 광고문에 포함하는 것, 본문의 문장을 초안의 마지막 문장처럼 조건과 관련되는 연결 어미를 활용하고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도록 진술하는 것이다. ④를 보면, 표제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언급하였고, 본문에 해당하는 문장의 ‘-으려면’을 중심으로 앞 절에 대해 뒤 절에서 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업무에서 멀어지고’와 ‘자신을 위한 활동과 가까워지세요.’에서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퇴근 후 시간은 ... 자신을 위한 활동과 가까워지세요.’에서 퇴근 후 시간 활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저녁이 있는 삶’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본문에 해당하는 문장에 조건과 관련되는 연결 어미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③ 퇴근 후 시간 활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 ⑤ 본문에 해당하는 문장에 조건과 관련되는 연결 어미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대구적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8.④

[해설]

말하기 방식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 4의 마지막 발언 순서의 내용 중 ‘실제로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동아리 가입 방법을 묻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 1은 유사한 사례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지 않다.
- ② 학생 2는 논의의 복잡성을 들어 후속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③ 학생 3은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 ⑤ 부장은 토의 주제에서 벗어난 참여자에게 토의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토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지 않다.

9.①

[해설]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 순서의 내용에서 진로에 적합한 동아리만 도움이 된다는 학생들의 인식이 있는데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 활동 내용을 모르다 보니 다른 동아리를 선택하게 된다는 내용과 학생 2의 첫 번째 발언 순서의 내용 중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㉔ 학생 1은 진로와 관련이 있을 것만 같은 이름을 가진 동아리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학생 2는 다른 학생들이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막연히 자신의 진로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모집 공고문이 진로 탐색 관련 내용에만 국한되어 있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㉔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㉕ 학생 2는 일회성 홍보는 동아리 활동 내용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이벤트를 기획하자는 ㉕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㉖ 토의 참여자 중 학교 축제 기간에 학생들이 직접 문학 토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으므로 ㉖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㉗ 학생 3은 문학 퀴즈를 내는 기존의 홍보 방식 대신에 동아리활동 내용을 안내하는 일에 초점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에 ㉗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0.③

[해설]

토의 진행 계획의 반영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㉑ 부장의 첫 번째 발언 순서의 내용에서 동아리 활성화 방안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 있다.

㉒ 부장의 두 번째 발언 순서의 내용,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 활동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와 네 번째 발언 순서의 내용, ‘학생들의 관심을 끌려면 축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를 통해 부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㉓ 학교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토의 참여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㉔ 부장은 토의를 진행하며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참여자들의 발언 순서를 지정해 주고 있지는 않으므로 ㉔는 토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다.

㉔ 모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 이해한 바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㉔는 토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다.

11.⑤

[해설]

보조 용언의 의미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친구인가 보다’의 보조 용언은 ‘보다’로 이는 해당 문장에서 ‘(두 사람이) ‘친구’라는 사실을 추측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떡어 버리다’의 ‘버리다’는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의미하는 말로 이는 완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사 났어’의 보조 용언은 ‘놓다’로 ‘놓았어’가 줄어들어 ‘났어’로 쓰일 수 있다. 이때 ‘놓다’는 ‘사다’라는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시들어 가네’의 보조 용언은 ‘가다’로 이는 앞의 동사 ‘시들다’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④ ‘가고 있어’의 보조 용언은 ‘있다’로 이는 현재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12.④

[해설]

문장의 구조 탐구

{정답이 정답인 이유}

관형사절은 문장 안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절을 의미한다. ‘어제 만난 친구를 또 만났다.’라는 문장에서 ‘어제 만난’은 ‘어제 만나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친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형사절은 문장 ㉑, ㉒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과 ㉒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가 여러 번 사용되었고, ㉓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2회 사용되었다. ㉑~㉓은 모두 한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것 같은 현상을 보이는 문장들이다. 이러한 이유를 찾아보는 것은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다.
- ② ㉑은 주어를 ‘아버지가’로 보고 나머지 부분을 서술절로 분석할 수 있다. 서술절의 특성에 대해 찾아보는 것은 적절한 탐구 활동이다.
- ③ ㉒에서는 주격 조사와 결합한 문장 성분이 여러 개인데, 이 중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은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다.

⑤ ㉠에서 ‘짜장면’ 과 ‘세 그릇’ 은 모두 목적격 조사와 함께 사용되었다. 이 둘이 나타내는 의미 관계를 설명해 보는 것은 적절한 탐구 활동이다.

13. ②

[해설]

부사어의 의미 활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는 골목길로 발길을 돌렸다.’ 에서 ‘로’ 는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이는 의미와 예문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려서부터’ 의 ‘부터’ 는 ‘어떤 상태의 시작’ 을 나타내는 조사로 ‘근 거’ 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가 아니다.

③ ‘우리 반보다’ 의 ‘보다’ 는 ‘...에 비해서’ 의 뜻을 나타낸다. 해당문장에서 ‘이유’ 의 의미는 ‘많으니까’ 의 ‘-으니까’ 를 통해 드러난다.

④ 어떤 일에 대한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는 ‘(으)로써’ 로 ‘대화로써 해결하다.’ , ‘말로써 규정하다.’ 처럼 쓰인다. ‘모둠장으로서’ 에서의 ‘으로서’ 는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낸다.

⑤ 이 예문에서 ‘에서’ 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낸다. ‘출발점’ 을 의미하는 예문 으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 걸린다.’ 등이있다.

14.④

[해설]

문장의 중의성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문장은 간접 사동문으로 형이 동생에게 옷을 입혀 주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관형어 ‘예쁜’ 이 ‘언니’ 를 수식하면 ‘예쁜 언니가 소유하고 있는 목걸이’ 라는 의미가 되고, ‘예쁜’ 이 ‘언니의 목걸이’ 를 수식하면 ‘언니의 예쁜 목걸 이’ 로 이해되므로 중의성이 발생한다.

② ‘나는 친구와 함께, 친구 동생을 만났다.’ 로 이해되는 경우와 ‘나는 혼자서, 친구와 친구 동생을 만났다.’ 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의적이다.

③ 부정 표현으로 인한 중의성이 발생하는 예로 ‘모자를 쓰지 않고 누나가 학교에 갔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누나가 모자를 쓰고 갔다.’ ‘누나가 아닌 형이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갔다.’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신다’, ‘입다’, ‘벗다’ 등의 동사는 ‘-고 있다’ 와 함께 쓰이면 동작의 진행과 함께 동작 완료 후의 상태의 유지를 의미할 수 있다. 즉, ‘구두를 신는 동

작을 진행함.’ 과 ‘구두를 신은 상태를 유지함.’ 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

15.④

[해설]

인용절의 특성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2~4행에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의 구별에 대한 내용이 있다. 직접 인용절은 피인용문(인용되는 말이나 글, 생각 등)을 원래 문장 그대로 가져오는 (나)와 같은 것이고, 간접 인용절은 (다)처럼 피인용문을 변형하여 따오는 것이다. 피인용문이 누구의 말인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인용 동사에 대한 내용이다. 인용 동사로는 ‘이야기하다, 소리치다’ 등 말하는 행위와 관련한 동사들이 사용된다.
- ② (다)에서 ‘자기’ 는 앞에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로, 앞서 언급된 ‘영수’ 를 가리킨다. 따라서 ‘자기가’ 를 생략한 ‘영수는 나에게 민회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도 (다)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 ③ (나)의 인용절에서의 주어는 ‘나’ 로 나타나고, (다)의 인용절에서의 주어는 ‘자기’ 로 나타난다. 따라서 (나)와 (다)의 인용절에서 의 주어는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⑤ (나)는 직접 인용절을 안은문장이고, (다)는 간접 인용절을 안은문장이다. (나)에서는 ‘라고’ 가, (다)에서는 ‘고’ 가 사용된 것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16.③

[해설]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3문단에서 이원론은 ‘정신 상태가 물질로 이루어진 뇌의 상태’ 와 별개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하였고, 기능론은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 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원론이나 기능론은 모두 정신 상태가 뇌의 상태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에서 ‘침팬지나 돌고래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 하는 사람은 거의 없’ 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
- ② 2문단에서 모방 게임은 필담을 통해 진행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방 게임을 통과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흉내 낼 필요는 없다.

④ 3문단에서 기능론은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능론에서는 인간처럼 행동한다면 기계이든 아니든, 인간과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든 아니든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⑤ 3문단에서 동일론은 ‘정신 상태가 물질로 이루어진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이론’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외계인이더라도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 상태가 우리와 같다면 우리처럼 생각한다고 말할 것이다.

17.③

[해설]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에서 ‘기계는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대답을 함으로써 질문자가 맞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쉽게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에 대해 척척 대답’ 하면 사람인 척하는 데 실패하고 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에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가 있을지 없을지’ 에 대한 ‘경험적 질문과 별개로 튜링 테스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 개념적인 질문도 던져야 한다.’ 라고 하였고, 바로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기계만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계라면 모두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모방 게임을 변형한 튜링 테스트는 필담으로 주고받는 질문을 하지만 기계가 외모나 목소리에서 인간과 구분할 수 없다면 직접 대면해서 튜링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2문단에서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다시 말해서 질문자가 답변자가 기계라는 것을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그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도 된다고 튜링은 생각했다.’ 라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계라면 모두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데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계가 있다면 튜링 테스트는 생각한다는 것의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할 것이다.

18.④

[해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 따르면, 존 설은 중국어 방 사고 실험으로 튜링 테스트를 비판하고 있으

므로 중국어 방의 상황과 튜링 테스트의 상황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어 방안의 사람이 아무리 중국어 대답을 잘 내보내도 중국어를 이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기계가 질문자의 질문을 잘 이해한다는 가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설령 그 가정을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계가 인간처럼 글자의 의미 또는 내용에 바탕을 두고 이해를 한다는 뜻이므로, 그때는 질문자가 기계인지 알아맞히지 못한다고 볼 것이기에 이 진술은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 따르면, 존 설은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을 통해 튜링 테스트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을 통해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도 생각한다고 말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3문단에서 튜링 테스트는 기능론을 전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존 설은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을 통해 튜링 테스트를 비판 하고 있으므로 기능론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 기능론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기능적, 인과적 역할로 정신을 정의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어 방 안의 사람이 ‘중국어 질문이 원하는 답변이 적힌 종이 카드를 정확하게 찾아 카드를 방 바깥으로 내보’ 내고 있다면 기능론은 중국어 이해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도 설은 그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는 기능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 ③ <보기>에서 존 설은 중국어 방에서 중국어 질문에 대해 원하는 답변을 정확히 내보내도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5문단에서는 튜링 테스트가 겉으로 드러난 대화와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존 설은 결국 겉으로 드러난 대화와 행동을 보고 생각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의 마지막 문장에서 중국어 방 안의 사람은 글자의 모양만 보고 답변을 처리하므로 글자의 의미 또는 내용에 바탕을 두고 이해나 생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존 설의 사고 실험은 튜링 테스트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튜링 테스트의 기계도 질문의 의미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⑤

[해설]

내용의 비판적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내부 구조가 같을 때 겉으로 드러난 대화와 행동도 같으리라는 전제에서 다른 존재가 생각하는지 판단’ 한다는 것은 오히려 ㉠를 제기하는 쪽이 취하고 있는 전제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칠판지나 들고래도 생각할 수 있는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4문단에서 언급한 생각 할 수 있는 기계는 모두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기준을 튜링 테스트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 ② ㉡는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데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말하고 있고 ㉢는 생각이 아니고 시뮬레이션에 불과한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4문단에서 말한 생각 할 수 있는 기계만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기준을 튜링 테스트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 ③ ㉣는 감각 기관을 이용하는 능력이 없는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비판이므로, 감각 기관을 갖춘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면 ㉤가 제기하는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다.
- ④ ㉥는 시뮬레이션은 진짜와 다르다는 비판이므로, 진짜와 구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이 있다면 그 비판에 대한 답변이 된다.

20.①

[해설]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역사 속의 구체적인 사례에 덧붙여 인물의 행적을 시대순으로 드러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덧붙이며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저생은 현실적 인간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어 있으며, 초월적 존재가 인물의 운명을 바꾸는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인용된 인물의 발화가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저생의 생애를 시대순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시간에 벌어진 여러 사건을 병치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나타나 있으나, 공간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게 된 계기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21.⑤

[해설]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원나라 초기 저생의 행실에 대해 서술자는 ‘본래의 사업에 힘쓰지 아니하고’라고 밝히고 있으며, ‘사람들 간에는 비루하게 여기기도 하였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밝히고 있어, 이때의 저생에 대해 관리로서 능란하게 처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한나라 때 저생이 ‘방정과에 응시’ 하는 것은 관직에 나아가려 함을 보이는 것으로, 저생의 생애를 관리의 생애에 대응시켜 서술하는 특징과 관련된다.
- ② 한나라 때 저생이 ‘저국공에 백주자사’가 된 것은 그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상승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관리로서 살아간 생애의 초기의 일로 볼 수 있다.
- ③ 양나라 때 저생의 일은 상승기에 공을 쌓았던 면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저생이 수나라 때 소외를 당하거나, 송나라 때 쫓겨나 쓰이지 못하게 된 것은 하강기의 면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2.②

[해설]

갈래별 특징, 성격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B]는 주인공의 선조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선 계’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저생에 대해 ‘성은 저요, 이름은 백’, ‘자는 무점’이며, ‘한나라 중상시 상방령을 지낸 채륜의 후예’라고 밝히고 있어, ‘서 두’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C]는 각 시대별로 저생의 공이나 행적 등을 밝히고 있어, ‘사적’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D]는 명나라에서 벼슬한 저생의 행적만을 밝히고 있어, ‘주인공의 죽음이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이는 ‘종말’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⑤ [E]는 저생의 자손이 보인 행적을 밝히고 있어, ‘후계’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3.⑤

[해설]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에서 표준 대기에서 8,000ft 고도의 대기압이 10.92psi 라고 했고, 4문단에서 고도 8,000ft 이상의 경우 대기압이 낮아 인간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1문단에서 대기압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낮아진다고 하였으므로 객실 내 압력이 10.92psi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승객들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서 객실의 여압은 최소한 대기압과 같거나 대기압 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4문단에서 항공기는 객실 내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지만 기체 내외부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6문단에서 지상에 항공기가 착륙하면 감압 밸브가 완전히 열려 외부 공기가 들어오도록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6문단에서 민간 항공기는 여압 조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개의 감압 밸브를 설치하거나 1개의 감압 밸브에 복수의 회로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4.③

[해설]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 따르면 블리드 공기는 터보 컴프레서의 터빈을 돌리고, 이로 인해 같은 축에 있는 터보 컴프레서의 압축기가 구동되면서 항공기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㉞의 공급량을 줄이면 ㉝의 흡입량도 감소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 대기의 압력과 온도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고 언급되어 있다.
- ② 3문단에서 블리드 공기를 많이 사용하면 엔진 추력이 줄어 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블리드 공기는 터보 컴프레서의 터빈을 돌리고, 이로 인해 같은 축에 있는 터보 컴프레서의 압축기가 구동되면서 항공기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블리드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외부 유입 공기가 유입되어 압축되지 않으며 결국 여압용 공기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 ⑤ 1문단에서 대기의 압력과 온도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4문단에서는 고도 8,000ft 이상에서는 인간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여 여압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8,000ft 이상의 고도에서는 항공기 외부 공기보다 온도와 압력이 높은 여압용 공기가 공급된다고 볼 수 있다.

25.④

[해설]

인과 관계, 상관관계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5문단에 따르면, 여압에서 중요한 요소는 객실 차압으로 인한 하중을 기체 구조가 얼마나 견디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즉 객실 차압을 견딜 수 있는 기체 구조

의 범위 내에서 항공기의 최대 비행 고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항공기의 최대 비행 고도가 향상된다는 것은 곧 항공기가 견딜 수 있는 객실 차압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객실 차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만으로는 최대 비행 고도가 향상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 ② 5문단에 따르면, 최대 비행 고도는 객실 차압을 견딜 수 있는 범위, 즉 기체 구조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 무관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에 도달하는 시간은 항공기의 상승률, 여압의 여부나 정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의 변화율과 비례하여 ㉠에 도달하는 시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항공기의 최대 비행 고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이 커지더라도 항공기의 기체 구조가 그러한 하중을 견디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을 향상시키려면 ㉡을 더욱 잘 견딜 수 있도록 기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또 ㉡은 항공기가 상승하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여압을 실시하지 않은 채 객실 기압이 외부 대기압과 같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 항공기 운항 시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26.②

[해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4문단을 통해, 항공기는 급격한 압력 변화에 의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압용 공기를 일정한 압력 상승률로 공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항공기의 고도가 8,000ft 이하 일 때는 별도의 여압 없이 대기압이 객실에 작용하지만, 적정한 객실 상승률을 유지하여 승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8,000ft 이하를 비행하는 경우에도 객실 상승률이 적정하지 않으면 승객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6문단에서 항공기가 지상에 착륙하거나 머무르는 경우 감압 밸브가 열려 외부 공기가 들어온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고도 8,000ft 이상의 대기압에서는 압력이 낮아 인간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고도 8,000ft 이상을 비행하는 경우 객실에 여압용 공기의 공급을 늘려 객실 고도가 8,000ft가 넘는 것을 방지한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기체 구조가 외부 대기압과 객실 압력의 차이에서 생기는 압력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이러한 객실 차압을 견딜 수 있는 기체 구조 강도에 따라 항공기의 최대 비행 고도가 제한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대 비행 고도를 비행하고 있는 [D]의 상황에서는 외부 대기압과 객실

압력 간의 차이가 기체 구조 강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6문단에서 비행기의 고도가 하강하면 감압 밸브가 서서히 열려 여압용 공기가 일정한 비율로 기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7.④

[해설]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는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라는 표현에서, (나)는 ‘하늘은 (땅은 / 산은 / 강은) 날더러 ~ 되라네(되라 하네)’ 라는 표현에서 자연물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 모두 색채어의 대비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가)와 (나) 모두 미완결의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는 ‘-뇨’, ‘-로구나’ 등의 종결 어미와 ‘아하하’ 등의 표현을 영탄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가)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갈 수 없는 처지를 한탄하는 어 조로, (나)는 방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며 화자가 말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8.②

[해설]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보기>에서는 (가)를 유편적 공간의 특성에 따라, (나)를 개방적 공간의 특성에 따라 시를 설명하고 있다. ㉠에서 ‘님 계신 곳 내 고향’ 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서 그리움을 환기한다. 하지만 자신을 가둔 고향의 ‘님’ 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물도 많고 산 첩첩’ 쌓인 ‘기험’ 한 ‘삼수갑산’ 의 물리적 특성을 드러내어 고향에 갈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는 마지막 행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와 연결되어 화자가 ‘삼수갑산’ 을 벗어날 수 없는 유편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아하 하’ 에서 화자의 자조적 어조가 드러난다.

④ ㉢에서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 아흐레 나흘’ 장을 찾아가서 ‘박가분 파는’ ‘방물장수’ 에 대한 표현은 목계 장터의 공간적 속성을 암시하고, 정착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연결된다.

⑤ ㉠에서 ‘산서리 맵차거든’, ‘물여울 모질거든’ 은 고달픈 현실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세상살이가 이렇더라도 화자는 ‘풀 속에 얼굴 묻고’, ‘바위 뒤에 붙으’ 려 하면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9.④

[해설]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천치’ 는 떠돌이의 본분을 잠시 잊고 ‘집 부리고 앉아 쉬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는 떠돌이 장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이나 타인의 시선 등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환기하는 것이지,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료 2]는 4음보로 구성된 민요의 율격 특징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4음보 율격을 주조로 하되,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뒷마루’ 등에서는 3음보로 변형하면서 민요의 리듬을 계승하고 있다.

② [자료 2]는 ‘치마 찢른 계집 있나 / 다박머리 자식 있나 ~ 털떡 신도 짝이 있는데’ 에서 ‘~ 있나’ 의 반복을 통한 열거와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하늘은 날더러 구름 이 되라 하고 /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잔들이 되라 하네’ 등에서 ‘~은 날 더러 ~이 되라 하네’ 의 반복으로 민중의 삶과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③ [자료 2]는 ‘지게 목발’ 로 ‘오늘도 이 짐을 안지고 가면 / 어떤 놈이 밥 한술 줄 놈이 있나’ 에서 화자의 고단한 삶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장터를 다니며 ‘서러운 방물장수’ 로 살아가는 하층민의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자료 2]는 ‘버선 짝’, ‘토시 짝’, ‘털떡신’ 등 민중의 생활상을 반영한 어휘를 통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고 있고, (나)는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뒷마루’ 등 토속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어를 통해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민중의 삶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30.⑤

[해설]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에는 올바른 양심 형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각종 영향력 행사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올바른 양심 형성을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은 이 글에 언급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 의하면, 양심의 자유는 내면 영역에서의 양심 형성의 자유, 외부 영역에서의 양심 표명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로 나누어진다.

② 4문단에 의하면, 양심 실현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③ 2문단에 의하면, 국가가 특정 양심이나 사상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 형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므로 종교를 강제하는 것 역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1문단에 의하면, 양심의 자유는 헌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보장된다.

31.⑤

[해설]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2문단에 의하면, 양심 형성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않고 양심을 형성하는 자유를 말하며, 올바른 양심 형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심의 주체가 각종 영향력의 행사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양심이 외부의 강제에 의해 형성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 의하면, 양심의 자유는 인간 내심의 자유로서 모든 자유의 근원적 성격을 지닌다.

② 2문단에 의하면, 양심 형성의 자유는 지극히 주관적 현상으로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③ 4문단에 의하면, 서로 다른 양심을 가진 자들이 각자의 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면 타인의 기본권이나 헌법적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④ 3문단에 의하면, 양심 표명의 자유가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32.④

[해설]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를 하는 행위’를 ‘양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여김으로써, 사죄 광고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인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죄 표시를 강제적으로 하도록 한 것을 특정한 사상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OO법원의 판결은 사죄 표시를 강제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지 양심의 표명을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OO법원의 판결은 민법 제764조의 조항을 근거로 사죄 표시를 강제하고 있는 것

으로, 소수의 양심을 배려하고자 한 판 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사죄 광고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다고 본 것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33.①

[해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양심상의 이유로 환자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기를 거부하는 의사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은 의사가 지닌 양 심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양심상의 이유로 전통 미술품의 판매를 거부할 때, 비용을 두 배 지불함으로써 거래가 성사된다는 것은 판매 거부의 결정이 더 이상 양심에 근거한다고 볼 수 없음을 나타낸다.

③ 양심상의 이유로 특정 기업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거부 할 때, 목소리만 나오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양심상의 이유로 충성 맹세를 거부할 때 서면으로 서약을 받는 방식으로 이를 조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부 합하지 않는다.

⑤ 양심상의 이유로 제보자 노출을 거부하는 기자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제보자의 신원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신원 노출 거부의 결정이 더 이상 양심에 근거한다고 볼 수 없음을 나타낸다.

34.②

[해설]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 ‘나’ 가 흑부리 영감의 처사에 반감을 품고 분탕질을 한다는 점에서, 수도상회는 ‘나’ 에게 복수를 실현하는 공간이 된다.

㉡ 수도상회의 주인인 흑부리 영감이 ‘나’ 와 아버지에게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흑부리 영감이 거래 관계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공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나’ 가 수도상회에서 경제적 자립을 모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수도상회가 시장통 사람들이 흑부리 영감의 평소 행실과 성품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흑부리 영감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5.④

[해설]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흑부리 영감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장면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이 장면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인물 간의 갈등이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반복되는 ‘!’ 는 ‘나’ 가 분탕질을 들킨 것이 아닐까 하여 흠칫 놀라는 부분이다.

② ‘중복되기 전에 인절미라도 해먹었어야 하는데…… 후유.’ 에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미안함이 느껴진다.

③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수도상회가 절단 난 얘기를 주고받았다.’ , ‘물건엔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았다는대두.’ 에서 사람들이 사건의 특이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그 영감 얼굴이 충격개나 받았는지 축이 가서 말이 아니더라구.’ 를 통해 흑부리 영감이 기운 없이 늘어져 있는 장면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36.④

[해설]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기세 좋게’ 아들의 뺨을 올려붙인 아버지는 흑부리 영감으로부터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의 원인 자체가 아들 잘못이 아니므로 ‘자신의 잘못을 덮어 주지’ 않아서 아버지를 원망했다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양을 자처한 어린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후 경험한 사건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와 대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② 무능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가난하고 궁핍했던 ‘나’ 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다.

③ 아버지에게 맞았던 장면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과 ‘단 한대’ 에 ‘무섭게 부풀어 오르며 감각을 잃’ 은 뺨을 통해 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세한 묘사는 성인이 되어서도 치유되지 못한 내 면의 상처를 ‘나’ 가 의식적으로 재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 을 했다는 ‘나’ 의 회상은, 유년 시절의 상처가 여전히 자신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7.⑤

[해설]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몹시 구린 냄새’로 표현된 ‘나’의 배설은 흑부리 영감에게 받은 자신의 상처와 복수심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거리가 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흑부리 영감에게 ‘나’가 아버지와 함께 겪은 수모는 ‘속에서 뭔가가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것’, 즉 분노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행동(배설)을 계획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② 소리 없이 돌아다니는 ‘나’의 행동 묘사는 은밀한 상황을 연출하여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③ ‘나’의 배에서 나는 ‘꾸르륵거리는 소리’는 ‘웬지 성이 차지 않았다.’라는 앞 문장과 결합하여 복수가 미진하다고 느끼는 ‘나’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간판을 ‘작살’내고 ‘뽀개 버리고’ 싶다는 표현은 인물의 내면 상처와 분노가 큰 것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8.②

[해설]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1문단에 기계식 레이더는 기수 부분에 장착되어 있으며 전자파를 주사하는 접시나 평판 모양의 안테나가 회전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서 기계식 레이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AESA 레이더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6문단에 AESA 레이더의 TRM이 고가인 관계로 TRM의 소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6문단에 최근 일부 항공기와 해군 함정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가 AESA 레이더로 교체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3문단에 AESA 레이더의 RF 처리 장치가 TRM에서 수신된 전자파를 분석해 필요 없는 정보나 노이즈를 제거하고 유의미한 정보만을 선별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39.②

[해설]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4문단에 AESA 레이더가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목표물에 대한 재탐지 시간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1, 4문단에 따르면, 기계식 레이더는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재탐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연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서 기계식 레이더는 공중과 해상, 공중과 지상을 동시에 탐색하는 것이 어렵지만, AESA 레이더는 TRM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동시에 여러 영역으로 주사하여 여러 영역을 동시에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3문단에서 기계식 레이더는 TRM이 없어 공기를 통해 냉각하는 방식으로 충분했지만, AESA 레이더의 경우 TRM과 전 원 공급 장치에서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더 많은 열이 발생하여 이를 방출하기 위해 액체 형태의 유체를 순환시켜 냉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에서 좁은 기수 부분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는 구조적, 기계적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기능적 제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6문단에는 좁은 기수 부분에 AESA 레이더의 TRM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열하고 집적도를 높이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⑤ 1문단에서 레이더는 접시 모양이나 평판 모양의 안테나로 부터 발신된 전자파가 목표물에 맞아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목표물의 거리와 각도, 형태 등의 정보를 얻는 장치라고 언급하고 있다.

40.④

[해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6문단에, 기수 부분에 장착되는 AESA 레이더에 TRM을 효율적으로 배열하고 집적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 되어 있다. 따라서 비행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의 TRM 수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또 5문단에서 AESA 레이더를 통해 원거리의 물체를 탐지할 때에는 비록 다른 대상에 대한 탐지 능력이 떨어지는 하지만 TRM에서 주사되는 전자파를 한쪽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섹터 I~IV를 탐색하던 중 원거리에 있는 [표적 B]를 탐지하기 위해 전자파를 집중할 경우, 섹터 II, III에 전자파를 주사하는 TRM의 수가 줄어들어 섹터 II, III에 대한 탐지 능력이 변화 하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 AESA 레이더는 전자파를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주사하여 공중과 지상 또는 공중과 해상과 같이 다양한 영역 을 동시에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 ② 5문단에 상대가, 내가 발신한 전자파의 신호를 분석하여 나 의 존재와 방향 등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상대의 레이더 전자파 감지 범위보다 약한 세기의 전자파를 발신하거나 전자파의 주 사 간격을 조절해 은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 ③ 4문단에서 AESA 레이더는 TRM에서 주사되는 전자파의 방향과 세기 등을 전자

식으로 조절하여 약 1/1,000초 정도의 시간에 같은 방향을 재탐지할 수 있으며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⑤ 4문단에서 TRM에서 전자파를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주사하여 레이더 탐지 범위에 있는 다양한 방향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41.⑤

[해설]

전제, 결론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 따르면, AESA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TRM 을 통해 주사되는 전자파의 방향과 세기 등을 조절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계식 레이더만을 사용해 온 조종사들은 레이더에서 주사되는 전자파를 탐색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분할하여 할당하고 그 방향과 세기 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자파를 발신하는 평판이 지속적으로 목표물을 향하도록 하는 것은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것으로, AESA 레이더에 비해 기계식 레이더 운용 시에 더욱 필요한 훈련으로 볼 수 있다.

② AESA 레이더의 발열을 해소하기 위해 액체 형태의 유체를 활용한 냉각 장치가 사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AESA 레이더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조종사들이 AESA 레이더의 효율적인 냉각을 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AESA 레이더의 주요한 기능은 TRM을 통해 주사되는 전자파의 세기와 방향 등을 전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목표물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레이더에서 주사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훈련은 AESA 레이더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훈련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는 은밀성과 목표물에 대한 원거리 탐지 능력은 모두 AESA 레이더의 장점에 해당한다. 하지만 5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목표물에 대한 원거리 탐지는 TRM에서 주사되는 전자파를 집중시켜 실현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다른 방향이나 영역에 대한 탐지 능력의 저하를 가져 온다. 그러므로 여러 영역에 있는 복수의 원거리 목표물을 동시에 탐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42.①

[해설]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를, (나)에서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꿈을 받아라’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

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새벽’이라는 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시간과 관련된 배경을 묘사하거나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나)에서도 ‘새벽’, ‘겨울밤’과 같은 시간을 제시하고 있고 ‘춣불도 꺼져 가는 어둔 방’과 같이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 부분도 있으나, 이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③ (가)에서는 ‘눈’을 통해 겨울이라는 계절을 떠올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대비되는 계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눈’, ‘겨울밤’ 등 겨울과 관련된 시어와 ‘봄눈’과 같이 봄과 관련된 시어를 대비하여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에서 ‘눈’을 ‘살아 있다’고 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눈’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나)에서 ‘새벽’, ‘밤’, ‘봄눈’ 등은 세상에서 겪는 다양한 일을 빗댄 우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⑤ (가)에서는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젊은 시인’에게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는 행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나)에서는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권하고 있다.

43.⑤

[해설]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봄눈’은 추운 계절을 뚫고 변화하는 기운으로, ‘보리밭길’과 마찬가지로 생성 이미지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을 걸으며 ‘가슴 가득히 / 꿈을 받’는 행동은 심리적 갈등을 겪는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을 딛고 희망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새벽’은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홀로 일어나서 희망을 품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② ‘돌아갈 길’이 없는 ‘눈 오는 밤’과 ‘어둔 방’은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화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슬픔을 사랑 하’고 ‘희망을 만드는’ 자세를 지니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③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과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은 역설적 표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절망과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망과 슬픔이 어디 있는지조차 찾을 수 없다는 비극적 인식을 드러내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절망적 이거나 슬프지만, 그 절망과 슬픔을 극복할 때 세상에 절망이나 슬픔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도 있다.

④ ‘기다림’ 과 ‘그리움’ 의 대상을 만나 ‘부둥켜안고 웃’ 고 ‘뺨 부비며’ 우는 장면은, 힘겨운 현실을 딛고 기다리던 대상을 맞이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관련된다.

44.①

[해설]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ㄱ의 속성을 지닌 ‘눈’ 이 ㄴ의 의미를 지니고 ‘살아 있다’ 는 것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정신이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재 정권의 현실에 대한 화자의 두려움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화자가 ‘젊은 시인’ 에게 ㄱ의 속성을 지닌 ‘눈’ 위에 ㄹ의 의미를 지닌 ‘기침’ 을 하도록 권하는 것은, 당시 현실에 맞서 비판적 의견을 표출하여 지성의 목소리를 내도록 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ㄷ의 의미를 지닌 ‘눈’ 위에 ㄴ의 속성에 따라 배설해야 하는 ‘가래’ 가 밤새도록 고였다는 것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여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떠올릴 수 있다.

④ ㄴ의 속성과 ㄹ의 의미를 지닌 ‘기침’ 을 ‘눈더러 보라고’ 한다 는 것은, 당시 현실과 관련된 양심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그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 준거를 ‘눈’ 의 순수성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⑤ ‘눈’ 이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는 것은 ㄷ, ㄴ과 같이 순수함과 생명력을 지닌 존재들이 억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